

비정규직, 코로나 피해 집중... 42% 격리기간 무급

저임금노동자 60% 무급휴가 코로나 실직, 5인 미만 24.7% 유급병가제도 도입·적용 필요

실직과 소득 감소, 격리기간 무급휴가 등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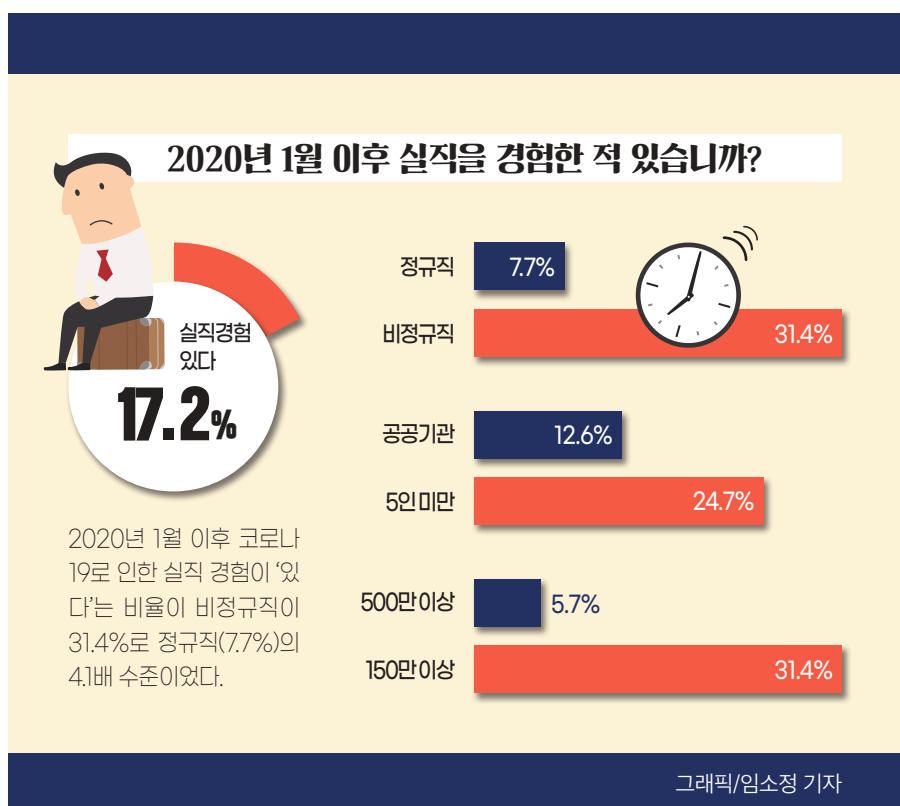
직장갑질119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확진자 430명을 별도 문항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공공기관·대기업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사무직보다 서비스직이, 고임금보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소득 감소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7.2%였고,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이 31.4%로 정규직(7.7%)의 4.1배 수준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4.7%로 대기업(11.2%)의 2.2배, 월 150만원 미만 저임



금 노동자는 31.4%로 월 500만원 이상 고임금노동자(5.7%)의 5.5배에 달했다.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도 정규직(16.8%)과 비정규직(57.0%), 공공기관(21.8%)과 5인 미만(44.2%), 고임금노동자(57.7%)와 저임금노동자(16.8%)가 2~3.4배 차이를 보였다.

지난 3개월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불이익 걱정 없이 백신·검사·격리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

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정규직에서 70.8%로 집계된 반면, 비정규직은 48.0%에 불과했다. 공공기관(79.1%)과 5인 미만 사업장(48.3%), 고임금노동자(81.0%)와 저임금노동자(41.3%) 등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 이 있는 응답자 430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도 함께 공개했다. 2020년 이후 분기마다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조사 결과를 발

표해 은 이 단체가 확진자 조사 결과를 따로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확진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동안 근무 처리 방식은 '추가적 유급휴가·휴업'(28.4%), '무급휴가·휴직'(25.8%), '재택근무'(2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격리 기간에 '무급휴가·휴직'을 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42.1%)과 정규직(16.2%), 5인 미만 사업장(40.3%)과 공공기관(13.6%)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특히 저임금 노동자(60.0%)는 고임금 노동자(3.3%)의 18배에 달했다.

출근하지 않은 동안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4.0%로 집계됐다. 정규직(23.6%)과 비정규직(51.6%), 공공기관(20.3%)과 5인 미만(48.6%), 고임금노동자(11.7%)와 저임금노동자(54.5%), 사무직(14.5%)과 생산직(53.8%)·서비스직(54.7%)이 2~5배 격차를 보였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정규직·대기업·공공기관 사업장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한 곳들이 있지만, 중소기업·저임금·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유급병가제도를 노동법에 도입하고 프리랜서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희 기자 yoonjuhee@hanmail.net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부 무궁화 가꾸기 봉사활동 / 상이군경회 경북지부 제공

상이군경회 경북지부, 무궁화 가꾸기 봉사

주민에 나라사랑 알리는 계기 마련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부는 지난 8일 직원 및 회원 44명이 참석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 경상북도보훈회관(700m) 까지 무궁화 가꾸기 봉사활동을 했다.

김성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부

장은 깔끔하게 단장된 무궁화가 경북도청 신도시 지역주민들에게 나라 사랑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라사랑 무궁화사랑 봉사회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부 직원과 국가유공상이자 회원으로 지난해 11월 창립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한우기술공감밴드, 산불피해 한우농가에 성금

2천800만원 상당 성금·물품 기탁

울진군은 최근 '한우기술공감밴드' 회원들로부터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위한 2천8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기탁받았다.

'한우기술공감밴드' 회원들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지역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언론매체를 통해 접한 뒤 성금을 모아 1천300여 만원의 현금과 1천500만원 상당의 환풍기, 생균제 등 물품을 울진군에 전달했다.

'한우기술공감밴드'는 SN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영농 기술을 알려주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술 SNS 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밴드로 전국의 한우사육농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협 관계자 8천여 명이 가입해 한우 사육기술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

전국중 미래농정과장은 "산불로 한우농가에 어려움이 많은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성금과 기탁해주신 물품들은 분명 산불 피해 한우농가에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부중 기자 bu-joung@hanmail.net



LS엔트론주식회사 및 ㈜TYM서 울진산불 피해농가를 위해 트랙터를 무상지원한다. / 울진군 제공

울진산불 피해농가에 트랙터 1년 무상지원

LS엔트론주식회사·(주)TYM 안전한 농기계 이용 교육 실시

울진군은 LS엔트론주식회사 및 ㈜TYM에서 울진산불 피해농가의 빠른 영농재개를 위해 트랙터 총 8대(각각 5대, 3대)를 1년간 무상임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북면농업협동조합 경제사업소에서 어승수 북면농협장, 전극중 미래농정과장,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농기계 전달이 진행됐다.

이번 산불로 인해 11대의 트랙터가 피해를 입어 불철 영농준비에 차질이 우려되었는데 무상임대 방식으로 북면농협에 6대, 울진농협에 2대를 지원하여 빠른 영농 재

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민성 LS엔트론(주) 경북영업소장은 "막대한 피해로 어려움이 많은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농기계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어승수 조합장은 "농기계 보험가입 등 1년간 임대트랙터 관리는 농협에서 맡아서 하고 피해 농가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극중 미래농정과장은 "임대농기계 지원을 위해 찾아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산불피해 농가들의 불철 영농 재개는 물론 각종 농자재 지원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부중 기자

노동부-주요 건설사, 건설현장 대책회의

현장사고 예방 자체 점검 주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8일 주요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을 불러 모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이날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등 8개사 안전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등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8개사는 주요 건설사 가운데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중 3개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7월 사이 이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이 법 적용대상인 '공사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7건이다.

한세민 기자

균형 덜 잡힌 최저임금... 작년 최저임금 위반 2천건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공식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가 2천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가 처리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총 2천233건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천926건, 2018년 2천425건, 2019년 2천840건, 2020년 2천901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그나마 줄었다.

지난해 사건 2천233건을 법 위반 사업장

편의점·식당·호프집 주요 발생 5인 미만 사업장 1천56건 '최대' 임금 대한 균형 잡힌 논의 필요

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이 1천56건으로 가장 많고 '5~49인' 619명, '50~299인' 353건, '300인 이상' 39건, '미확인' 166건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편의점이나 식당, 호프집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

다"며 "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이런 영세 사업장이 고용한 근로자가 줄어 최저임금법 위반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2천233건을 최저임금법 조항별로 살펴보면 '6조 위반'이 2천19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저임금법 6조는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 안 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2천233건의 약 절반인 1천150건을 '행정 중결' 처리했다. 조사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구제된 경우가 많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1천73건은 사법처리돼 기소 등으로 이어졌고, 10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는 사법처리하는 대신 권리 구제와 과태료 처분 등으로 조기에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골목상인들의 부담 능력과 종업원의 적정임금 간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세민 기자 bin1311@naver.com

나눔동행 - 이웃사랑 나라사랑 괴산 김경희 씨

“서로 돕고 나누는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6년간 쌓인 2천여만원 기부 폐암 판정에도 이웃에게 나눔 나눔의 원천은 고단했던 생활



김경희 씨는 희망나눔 성금 2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연합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사는 김경희(85) 할아버지는 지난달 21일 TV를 보다가 한달음에 면사무소로 향했다.

그러곤 우크라이나 국민과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50만원 씩 총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그는 “내가 전생을 겪고, 고생이 많이 해봐서 잘 안다”며 “사람이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아느냐”고 말했다.

동네 노인회장을 맡았던 2017년부터 최근까지 그가 지역인재 양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여차례에 걸쳐 내놓은 성금은 2천만원이 넘는다.

지난해 받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한 푼 손대지 않고 오히려 가지고 있던 돈을 보태 기부했다.

김 할아버지는 자신의 '나눔의 원천'은 젊었을 적 고단한 삶이었다고 말했

다. 10여년 전 아내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 그 후유증으로 거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김 할아버지는 2015년 폐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몸이 불편한 아내를 직접 간호하며, 병마와 싸웠다.

이런 자신보다 힘든 이웃을 생각하며 틈틈이 나눔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소일삼아 다슬기를 잡고, 약초를 캐 홀로 사는 이웃을 챙겼다. 2017년 유례 없는 폭우로 수해가 났을 때는 자신의

집에도 피해가 있었으나, 홀로 사는 90대 이웃의 보일러를 먼저 교체해 주기도 했다.

김 할아버지는 자신의 나눔의 끝은 자기 기증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죽으면서 욕심낼 필요 있나, 두고갈 게 있으면 나눠야지”라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끝으로 “서로 돕고 웃으며 사는 게 제일”이라면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이걸 보고 다른 이들도 서로 돕고 나누는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소정 기자 sojeong0682@naver.com